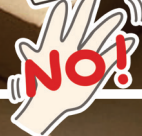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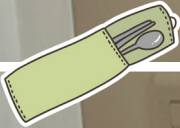


# 지구살림 가이드북



# 1. 은영상점

instagram@eunyoung\_store

대전 유성구 대학로159번길 2 1층

영업시간 12:00-20:00

010-4414-9475

# ‘은영상점’

## Q1. 어떻게 '친환경'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가게를 준비하셨던 과정이 궁금해요!

기후 위기와 환경과 관련된 전시를 준비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에 플라스틱 물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용품들을 많이 찾아보았고,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거 같아요. 공예 제품에 관심이 많아 도자기도 만들고 뜨개질도 하며 우리의 물건도 같이 소개하게 되었어요.

차와 요가를 배우면서 나와 내 주위의 환경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채식이나 비건, 환경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앞으로 더어나가고 싶어요.

‘우리의 공간을 만들자’ 하고 위치를 잡고부터는 큰 걸림돌 없이 진행한 것 같아요.

## Q2. 가게 준비를 하며 일회용품 사용실태에 대해 많은 심각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생활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편리함에 길들여져 무심결에 사용하게 되는 일회용품들이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습관화되어있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음식점에 가서 물티슈 사용하거나 일회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물건들. 가게 준비를 하며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우리 생활에서 가까운 행동에서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피숍에 가서 빨대 사용하지 않기, 물티슈가 필요할 때는 행주 사용하기, 배달음식 줄이기, 마트 갈 때는 필요한 물건 메모와 장바구니 챙기기 등 작은 실천부터 행동하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매장을 운영하며 언제 가장 기뻐나요?**

손님들이오셔서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심을 보일 때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아직 완벽한 환경지킴이는 아니지만 저희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작은 실천과 습관들을 누군가와 함께 생각하고, 시작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Q4.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친환경 물품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게 참 좋은데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그런 물품이요^^**

천연 수세미를 추천해요. 수세미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는 기사에 충격을 받았어요.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며 미세 플라스틱도 줄일 수 있고, 또 질기고 잘 닦여서 진짜 바꿀 걸 아쉬워해요.

**Q5.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모든 것에 조심스럽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보니 검색을 정말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지속가능한 물건이란 말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많이 공부 하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에 대해 그리고 제품의 성분들 생활의 용의성에 대해 많이 찾아 보고 직접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책과 동영상 사이트들에서 설명해 주기도 해서 처음 제로 웨이스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거 라고 생각해요.

**Q6. 친환경 가게는 계속 커질까요?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저희 주변에도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손님들 중에도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어요. 다양한 친환경 브랜드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친환경 가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은영 상점에 방문해 주신 분 중에 낯선 물건들에 놀라시는 분이 꽤 있으세요.

친환경 대안용품들이 대중적이지 않고, 생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Q7. 운영하시는 가게가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 혹은 위치이길 바라시나요?**

친환경 대안 용품 사용을 처음해보시는 분들께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가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은영상점 김나현, 이선화 님**



## 2. 프롬더코너

프롬더코너

FROM THE CORNER grocery store

*익숙하지만 조금은 다른 반찬과 식료품을 팝니다.*

화~일 12:00~22:00 / 월 OFF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586-1(중동),

instagram @fromthecorner\_f

band.us/@fromthecorner

010-2950-2703

## ‘FROM THE CORNER grocery store’



### Q1. 어떻게 '친환경'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가게를 준비하셨던 과정이 궁금해요!

프롬더코너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다른 반찬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가게를 시작할때부터 환경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포장 용기에 대한 고민, 반찬통과 장바구니 사용 독려, 비건지향, 제철재료와 로컬푸드, 전통방식으로 담그는 장들, 동물복지 유통란 등 이런 고민을 담아 하나씩 쌓다보니 친환경 가게로의 정체성이 생겼어요.

### Q2. 가게 준비를 하며 일회용품 사용실태에 대해 많은 심각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반찬가게는 음식할 시간이 넉넉치 않은 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곳이에요.

편리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쓰레기를 많이 발생해요. 더불어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은 배달과 테이크아웃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요즘엔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마음 불편해해 대안적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어요.

### Q3. 매장을 운영하며 언제 가장 기뻐났나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지지해주시고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에 손님과 마음이 모아질때 기뻐요.

### Q4.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친환경 물품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게 참 좋은데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그런 물품이요^^

저희가계에서 파는것으로 보자면 동물복지 유정란을 소개하고 싶어요. 지리산에서 방사로 길러지고 있는 귀한 1번 계란이에요. 그리고 속리산 아미산 썬티마을의 간장은 화학물질 없이 전통방식으로 담근 간장이예요. 2018년에 담은 간장은 다 떨어져서 내년을 기다려야하죠. 좋은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들의 물건을 사는것은 중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포장용기도 좋게 잘 나와요. 생분해되는 비닐과 PLA 수지, 밀짚펄프 등 소각시 유해물질도 안나오고 사이즈와 디자인도 좋아요. 또 설거지비누도 플라스틱이 없고 수질오염 물질이 적어 참 좋더라고요.

### Q5.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게들은 태생적으로 소비를 추구해요. 소비를 위한 생산 활동시 쓰레기가 나오는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친환경적 움직임들은 불편함이 따라요. 비용도 더 높고요. 친환경적 의지들이 더 통용화되어서 일반적인 문화가 되길 바라요.

### Q6. 친환경 가게는 계속 커질까요? 그러려면 어떤것들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커질거라 생각해요.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요. 불편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비용에 있어 함께 부담하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어야할 것 같아요.

### Q7. 운영하는 가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 혹은 위치이길 바라시나요?

판매품목으로 보자면 일상적 반찬과 먹거리에 프롬더코너만의 제안을 담아 식사의 일부분까지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는 자신의 반찬통을 가져와 덜어가는것, 친환경 포장용기를 사용하는것, 지역의 식재료를 먹는것, 전통 방식의 장들을 소비하는것, 동물복지를 넘어 비건을 지향하는 것들이 멋지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가게이고 싶어요.

**프롬더 코너 서은덕님**



# 3. 늘미곡

## 친환경 플랫폼 '지구살림정거장' 인터뷰

전화 070-4240-0225

주소 54986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16 늘미곡

영업시간 월-금 10:00 - 19:00(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neulmigok.com/>

### Q1. 어떻게 '친환경'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가게를 준비하셨던 과정이 궁금해요!

저는 다른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이랑 시작이 조금 달라요. 어머니가 전주에서 20년간 잡곡 유통업을 하고 계시는데 8년 전 카페 바람이 불었을 때, 소가족을 겨냥해서 벌크 상태의 잡곡을 진열해 놓고 원하는 만큼 퍼 담는 쌀 카페를 열고 싶다고 어설폰 사업계획서를 써서 준 적이 있어요. 실행도 못해보고 추억으로 남겨뒀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해외 파머스 마켓을 보고 옛날 추억이 되살아나서 회사 퇴사를 결심하고, 중국 공장으로 직접 연락하여 디스펜서를 구매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가게는 내가 최초야!'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이게 제로웨이스트샵이었던대구요. 그래서 잡곡제로웨이스트샵이 되었어요. 그래도 잡곡제로웨이스트샵은 전국 최초일 거예요

### Q2. 가게 준비를 하며 일회용품 사용실태에 대해 많은 심각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큰 문제가 무엇이 라고 생각하셔요?

간편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잡곡 가게를 준비하면서 3인분의 잡곡을 일회성으로 소포장한 '하루 잡곡'이라는 물품을 준비했다가 제로웨이스트 취지와 맞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렌즈도 일회용이 간편하고, 한 번 먹고 버리는 일회 용기도 간편하잖아요. 간편함이라는 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지지만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고 있죠.

### Q3. 매장을 운영하며 언제 가장 기뻐나요?

70대 노부부가 용기를 들고 잡곡을 사러 오셨을 때가 기쁘고 기억에 남아요. 일부에서는 필 환경 시대로 보지만, 아직까지의 제로 웨이스트는 하나의 유행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 알려져 있죠. 그 부부는 "땀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안심이 되네요." 라 말해주셨었어요. 그때 느꼈던 박람회 책임감은 앞으로의 저에게 항상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Q4.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친환경 물품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거 참 좋는데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그런 물품이요^^**

저는 소프넛인 것 같아요 무환자 나무 열매로 껍질에 사포닌 성분이 천연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데 저도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다가 여러 대체 물품 중 하나라고 해서 접하였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실제로 사용해보니 너무 좋았어요. 일반 세정력은 기본이고 기름기랑 깨끗하게 잘 닦여서 저의 최애 친환경 물품이에요.

**Q5.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 시작하였을 때 였던 것 같아요.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탄소발자국을 안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가장 숙제라고 말했던, 첫 제로웨이스트 손님이었어요. 기업에서 환경기사로 일하고 있었던터라 "내가 환경 전문가지"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일상 속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과의 첫 대면에서 완패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날 저녁에 제로웨이스트와 연관된 책을 15권을 넘게 주문했어요. 이제는 그 분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요. 저도 같은 걱정과 같은 숙제를 갖게 되었어요.

**Q6. 친환경 가게는 계속 귀찮까요? 그러려면 어떤것들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일단 환경이라는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환경은 쉽고 이질감이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질 숙제이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 제로 웨이스트 관련 책을 읽을 때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보아서 혼자 책이랑 싸웠어요. 말도 안 돼 하면서요. 그러다가 "분리배출"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납득이 갔어요. 그 책은 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했거든요. 그건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호기심에 방문한 가게를 둘러보고 나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볼까? 라는 마음을 들게 해야 하는 안내자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Q7. 운영하시는 가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 혹은 위치 이길 바라시나요?**

늘미곡이라는 가게는 "건강한 곳"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잡곡과 건강한 소비 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마음 그대로요. 늘미곡에 갔다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곳으로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 쓰레기를 줄이는 10 가지 방법

©영선



#1  
일회용 휴지, 냅킨보다  
손수건 사용하기



#2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 텀블러 이용하기



#3  
플라스틱 빨대 미리 거절하고  
다회용 빨대 사용하기



#4  
비닐봉투, 플라스틱 용기 대신  
재사용 용기, 에코백 사용하기



#5  
필요한 만큼 덜어쓰는  
포장없는 가게 이용하기



#6  
플라스틱 칫솔 대신 자연친화적인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7  
일회용 식기 거절하고  
가능한 개인식기 사용하기



#8  
배달, 인스턴트 음식보다  
유기농 채蔬 음식 위주로 먹기



#9  
필요 없는 물건 받지 않기  
(1+1, 홍보물, 샘플)



#10  
동네 중고 직거래 이용하기

대전충남 GREEN KOREA  
녹색연합

회원되어  
녹색활동  
지원하기



친환경종이를 사용해 공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